투어 번호
LKVMXYBA5W

Geoffrey Bawa 인상기 (8일)

8일 · 7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8일 투어는 스리랑카 건축가 Geoffrey Bawa의 작품을 따라 콜롬보의 타운하우스에서 Lunuganga의 컨트리 가든, 그리고 남부 해안에 그가 설계한 여러 호텔까지 소개합니다. 또한 Sigiriya와 Polonnaruwa의 문화삼각지 유적지와 산악 도시 Kandy를 방문하므로, 이 여행은 건축적 관심사와 섬의 고대 역사를 결합하며 남부 해안에서의 해변 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행은 전 일정에 걸쳐 운전기사 겸 가이드가 동승하는 개별 에어컨 차량으로 진행되며,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Dambulla와 Kandy를 거쳐 남쪽으로 Bentota, Galle, Mirissa로 이동합니다. 여정 중에는 콜롬보의 Bawa 자신의 주택, Heritance Kandalama, AVANI Bentota, Heritance Ahungalla, Jetwing Lighthouse, 그리고 Sigiriya Rock Fortress, Polonnaruwa 유적, Embekke Temple, Kandy의 Sacred Tooth Relic Temple을 둘러봅니다.

이 경로는 요새화된 고도시 Galle과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Mirissa 해변에서의 자유로운 시간으로 마무리되어, 여행객들에게 가이드 관광과 여유로운 시간의 혼합을 제공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콜롬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 나와 콜롬보로 이동하여 체크인 후 휴식을 취합니다.

Day 2 콜롬보 → 담불라

이날은 제프리 바와의 콜롬보 자택을 방문한 뒤 담불라로 이동하며, 저녁에는 그의 대표적인 호텔 건축물 중 한 곳에 들릅니다.

제프리 바와의 콜롬보 자택

33번가에 위치한 이 저택은 1958년 단층 방갈로를 개조하며 시작되었고, 이후 10년에 걸쳐 바와가 인근 방갈로들을 사들이면서 확장되었으며, 그중 한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4층짜리 탑을 세웠습니다.

헤리탄스 칸달라마

바와가 설계한 이 호텔은 돌기둥 위에 지어져 자연 지형과 하나가 되어 있으며, 복도에는 바위와 돌벽이 그대로 살아 있고, 평평한 지붕은 야생 조류를 불러들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그린 글로브 21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 최초로 LEED 인증을 받은 호텔이기도 합니다.

Day 3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당일 일정으로 시기리야 바위 요새와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를 둘러본 뒤 담불라로 돌아옵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 카샤파 왕을 위해 지어진 바위 요새를 오르며, 이 유적지의 이름이 유래된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지나 남아 있는 벽화,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궁전 유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둘러봅니다.

Wrobell · CC BY-SA 3.0



고대 왕국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성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수도 유적을 거닐며, 갈 비하라야, 와타다게, 연못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관련된 조각상 등의 유적을 살펴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4 담불라 → 캔디

캔디로 가는 길에 마탈레에 들른 뒤, 오후에는 언덕 위 고도 캔디와 그 주변의 사원들을 둘러봅니다.

마탈레 헤리티지 센터

캔디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 마탈레의 헤리티지 센터를 방문합니다.



엠베케 사원

거의 전체가 나무로 지어진 사원으로, 조각된 기둥, 들보, 서까래, 문틀에는 얽힌 백조, 쌍두 독수리, 동물과 인간이 결합된 형상 등 500가지가 넘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지붕은 단 하나의 나무못으로 지탱되는 26개의 서까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erubino · CC BY-SA 3.0



불치사(신성한 치아 사원)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통로를 따라 채색된 홀, 조각된 기둥, 황금빛 불상들이 이어집니다.

A.Savin · FAL

Day 5 캔디 → 벤토타

경로는 남쪽 해안으로 이어지며, 이날은 벤토타에 있는 바와의 주택 및 호텔 건축물 두 곳을 중심으로 둘러봅니다.



루누간가 에스테이트

1947년에 시작된 제프리 바와의 시골 저택으로, 그의 평생에 걸친 건축적 아이디어의 개인적 실험실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루누간가 트러스트로 넘어갔으며, 현재는 일부가 방문객에게 개방된 컨트리 하우스 호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co2004 · CC BY-SA 4.0

아바니 벤토타

벤토타 해안에 위치한 75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춘 바와 설계의 비치 호텔로, 인도양의 전망과 스리랑카 전통의 환대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Day 6 벤토타 → 갈레

이날은 바와가 설계한 또 다른 호텔들을 둘러보며 옛 식민지 도시 갈레로 향하고, 저녁에는 미리사로 이동합니다.

헤리탄스 아훈갈라

어촌 마을 아훈갈라에 위치한 제프리 바와 설계의 5성급 비치 호텔로, 개방형 로비에서 인피니티 풀과 바다, 그리고 열대 햇살을 가려주는 정원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제트윙 라이트하우스

갈레 외곽에 위치한 바와 설계의 호텔로, 옛 네덜란드 식민지 도시의 경계에서 그의 특징적인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옛 식민지 도시 갈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세운,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인 갈레 포트를 탐험하며, 해양 박물관, 갈레 국립 박물관, 등대를 둘러보고, 지금도 네덜란드식 이름이 남아 있는 자갈길을 걸어봅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7 미리사

미리사에서 해변과 호텔 시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Day 8 미리사 → 공항

아침 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행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